

정례브리핑

2020.5.20(수) 10:00, 여상기 대변인(통일부)

안녕하십니까? 5월 20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
먼저, 장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장관은 오늘 별도 일정 없이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고요. 내일은 오전 9시 30분 서울정부청사 앞 주차장에서 통일부 노조와 한적이 함께 실시하는 '코로나19 극복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'에 참석할 예정입니다.

같은 날 오후 6시 20분에는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되는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에서 '문재인의 한반도 정책'에 대해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. 이 특강은 일정만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.

다음,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보시고 내일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.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에는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되는 통일정책최고위 지도자 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.

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

[질문 · 답변]

※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(***)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.

<질문> 최근 유엔 인권기관들이 1969년 북한의 KAL기 납치에 대해 잇따라 혐의 서한을 보냈습니다. 그런데 북한은 도리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북한은 한국인 납북 그 사건을 부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무엇인지, 그리고 KAL기 납북사건과 관련해 11명의 행방에 대해 통일부가 파악한 것은 무엇이고 이들에 대한 송환 계획이나 계획은 없는지 여쭙습니다.

<답변>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남북 간 여러 계기 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해 왔습니다. 다만,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

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관계 차원 또는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<질문> 한 가지만 더 *** 무엇이었는지 그것 좀.

<답변> 기본적으로 북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 문제를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

<질문> ***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

<답변> 네, 올해가 말씀하신 것처럼 5.24조치 10년, 10주년이 되는 해

입니다. 이 5.24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죠. 그래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5.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

향후 정부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<끝>